

청정 제주 특산물 전국 소비자에게 알린다



'제1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26-29일 나흘 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한라일보 등 지역 언론사가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박람회는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를 주제로 전국 180개 업체가 참가,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축수산물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을 모색하는 자리다. 제주에선 5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해 청정 제주에서 키운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참가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한다.



배경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주식회사 청담(갈치·참조기·육뚩·고등어 등)
 제주도 내 5개 항에서 직접 수매한 원물을 자체 해설(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가공공장에서 급랭·가공·포장·출고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 생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이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며 원물의 추적성과 품질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갈치, 참조기, 육뚩과 프리미엄 수산물 세트 등 제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을 판매하며 2025년 연 매출 93억원을 기록했다.
 청담이 운영하는 수산물 브랜드 '제주 반했어'는 프리미엄 제주 수산물과 감성 패키징, 소비자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 이커머스 기반의 소비자 직판(D2C) 체계를 구축하며 제주 수산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시도해 국내외 시장 확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회사 굼잡제주(감귤진피 아이스크림·감귤진피 휘낭시에)
 제주에서 버려지거나 저평가되던 농산물과 농업 부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지역 순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감귤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귤껍질(진피), 판매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한라산 자연초지 방목으로 행복한 젓소에서 나오는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 등 제주 고유의 원재료를 활용해 프리미엄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다. 자체 운영중인 브랜드 카페 '카페오놀(Cafe onol)'과 '아이갓에브리씽 카페오늘점'을 통해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또 원재료 전처리부터 제조·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개발로 농·축·수자원의 융합형 식품 비즈니스로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산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미네랄솔트(미네랄 소금)
 제주미네랄솔트는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해 미네랄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제주 화산섬의 현무암 지층을 통과하며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여과된 해수로 다양한 미네랄 성분을 안정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제주 용암해수의 미네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식품과 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이어가며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또 용암해수 미네랄 가공·제조 기술과 관련해 국내 제조기술 특허 7건과 일본·중국의 해외 특허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제주미네랄솔트'는 제주 용암해수를 원료로 제조된 분말형 미네랄 소금으로, 일반 정제염과 달리 식품 원료와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또 '제주미네랄솔트트립티드'는 용암해수 미네랄을 액상 형태로 구현한 제품으로,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 인투주식회사(스피루리나 해조선식·검정보리 단백질 셰이크·청귤청 등)
 2015년 설립한 종합 식품기업이다. 'Total solution for F&B business'를 모토로 스피루리나·검정보리·청귤·한라봉 등 제주의 청정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제주산 스피루리나와 해조류를 담아 성인 일일 단백질 섭취량(8.8g 이상)을 충족하는 '스피루리나 해조 선식', 제주 검정보리와 검정콩의 영양을 담은 '검정보리 단백질 셰이크'(단백질 13g 함유, 미국 FDA 등록 및 수출)도 있다. 또 100% 유기농 감귤을 슬라이스한 '감귤칩'과 제주 천연 원료 함량이 60% 이상인 '청귤청·한라봉청', 제주 천혜향을 100% 착즙한 주스 등이 있다.
 이같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고 있으며, 매년 목표치를 웃도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판매하는 먹는샘물 브랜드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뛰어난 수질과 품질 경쟁력으로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샘물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삼다수 원수는 한라산에서 내린 빗물이 화산암반층을 거치며 오랜 시간 자연 정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화산암반수다. 최근 제주삼다수의 원수인 지하수의 생성 연령이 31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수원지의 청정성과 자연 여과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제주삼다수는 철저한 원수 관리와 품질 관리시스템으로 '2026년 국제식품료 품질회(ITI)'에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국내 먹는샘물 업계 최초로 9년 연속 획득하기도 했다.
 또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제품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적용 등 친환경 생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원순환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축 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연

제10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와 미래 연구원 이사장 김기성